

# 쌀값 안정 위한 수급안정장치 제도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월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7월 30일)에 맞춰 쌀 수급안정장치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변동직불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벼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쌀 수급관리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매년 10월 15일 까지 미국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도록 제도화하고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했다.

그간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전문가 등 관계자 의견 수렴, 관계 부처 협의, 과거 쌀 시장 분석 등을 바탕으로 수급안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구체화해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양곡수급안정

농식품부, 양곡관리법 시행에 맞춰 세부 기준안 마련  
매입·판매 계획 포함 미국 수급안정대책 수립 등 골자

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했다. 시행령에는 미국 매입의 일반적 기준과 재배면적 조정 절차에 대해 정하고, 고시에는 미국 매입·판매의 세부 기준, 생산량·수요량 추정 방식, 협의기구 운영 등 수급안정대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완료했으며,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28일까지 추진한다.

농식품부의 이번 '쌀 수급안정장치'는 매입 또는 판매 계획을 포함한 미

곡 수급안정대책 수립, 재배면적 조정,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매년 10월 15일까지 수립되는 미국 수급안정대책에는 가격 안정을 위한 매입 또는 판매 계획이 포함되는 바, 쌀 과잉 생산, 가격 하락에 대비한 매입 기준은 △작황 호조 등으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초과생산량 범위에서 미국 매입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미만이라도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도 초과생산량 범위에서 미국

매입 △연속된 공급 과잉으로 민간 재고가 누적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물량 매입 등이다.

쌀 생산 부족, 과도한 가격 상승에 대비한 정부 보유 미국 판매 기준은 △민간 재고 부족 등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3분기 연속으로 가격이 1% 이상 상승하는 경우 등이다.

생산량과 수요량 추정은 통계청 조사자료를 활용하며, 통계청 조사자료가 없는 경우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등의 관측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통계 발표 시기를 감안해 대책 수립 이후 수급 전망이 변동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정부가 수급 안정을 위해 재배면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대상 면적, 조정 방법 등을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의 협의 기구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수급안정대책 수립, 재배면적 조정 등의 주요 사항은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생산자단체 대표,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 전문가를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구성된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농식품부는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제·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산 미국 수급안정대책 수립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쌀 수급안정장치 제도화로 수급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매입·판매 기준을 명확히 해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쌀 수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우수농산물 구매 '이제 비대면이 대세'

농식품부·aT, TV홈쇼핑 등 통해 매출 58억원 돌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가 코로나19로 변화된 소비패턴을 반영해 우리 농산물의 비대면 판로를 지원한 결과, 누적 매출 58억원을 돌파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역특산물 생산능력을 돕기 위해 공영홈쇼핑, 홈앤쇼핑과 추진한 TV홈쇼핑은 방송 8회 만에 주문금액 7억 6천만원을 달성했고, 국내 대표 이커머스사인 쿠팡, 11번가와 함께한 온라인 직거래기획전은 한 달 만에 43억원 매출을 거뒀다.

또한, 오프라인 판매장인 직거래센터에 '드라이브 스투(Drive Thru)' 방식을 도입해, 과천 바로마켓 등에서 총 23회 운영한 결과 7억5,000만원의 매출을 거뒀고, 로컬푸드직매장 2개소에 모바일주문과 근거리 당일배송서비스가 도입되는 등 우리농산물의 비대면 유통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농식품부와 aT는 지금의 성공세를 이어, 비대면 유통채널을 통한 우수농산물의 판로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aT 오정규 유통이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 농산물의 구매방식도 비대면 유통채널이 대세가 되고 있다"며 "변화된 트렌드에 맞는 판로지원으로 중소농가의 소득향상과 소비자의 만족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젓소·보증씨수소 3마리 선발

농진청, 히어로·로또·선사인 등 유전능력 '탁월'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가족개량협의회 젓소분과위원회를 열고 젓소 개량을 이끌어 갈 젓소 보증씨수소 3마리를 뽑았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가족개량원을 통해 젓소 농가에 공급될 예정이다. 가격은 농협경제지주 젓소개량사업소에서 결정한다.

국립축산과학원

원은 '축사로(chuksaro.nias.go.kr)' 서비스를 통해 전국 농가 암소의 유전능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가에서 보유한 암소의 유전능력 정보를 조회해 정밀한 개량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젓소 보증씨수소 선발과 정액 생산·공급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농협 젓소개량사업소, 한국종축개량협회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국가젓소개량사업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김시동 가족개량평가과장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내년부터는 국제유전체유전능력평가 결과를 농가에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국내산 씨수소의 유전능력에 대한 국제적 검증 신뢰도를 한층 올려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순종의 길, 이단의 길' ... JB문화공간 인문학 특강

명진 스님 초청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의 후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JB문화공간은 최근 문화공간 회원과 시민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명진 스님의 인문학 특강을 실시했다.

명진 스님은 1969년 해인사 백련암으로 출가, 2010년 중앙종회와원 및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을 거쳐 봉은사 주지 등 조계종 요직을 거친 후, 현재 수행모임 단지불회 회장, 사단법인 평화의길 이사장, 참여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비정규직노동자의 집 '뭍집'의 고문을 맡으며 여전히 교단의 부조리 개혁과 사회변화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 명진 스님은 '순종의 길, 이단의 길-남을 따라 사는 삶,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19살에 출가해 50여 년 동안 수행자로서 또는 파란만장한 한 인간으로서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이 어떠한 틀에 얽매지 않고 벗어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개발, 경제발전 등 모든 것을 성장 중심으로 사고하는 인간의 오만인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연을 거스르며 전 지구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고 규정하고 기존의 가치나 조직, 틀을 거스르고 이단적인 자세를 가져야만 인류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근원적인 불만을 지속



JB문화공간은 최근 문화공간 회원과 시민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명진 스님의 인문학 특강을 실시했다.

하면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해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문화공간 한 회원은 "스님의 말씀을 통해 빠르게 바뀌는 현대사회에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바르게 살아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며 "그동안 문화공간 프로그램에 대부분 참석하였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며 항상 다채로운 강연을 제공하는 전북은행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JB문화공간 성재환 대표는 "JB문화공간은 생활 속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등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

하며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시간을 선물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JB문화공간의 회원 가입 및 프로그램과 대관 신청은 홈페이지(www.jbcenter.or.kr)와 JB문화공간 담당자(☎063-288-7797)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회원 가입한 이용자들에게 동호회 대관시 우대 혜택,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 및 각 강연, 공연에 무료 및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JB카페 50%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김윤상 기자

예수병원, 심평원

환자경험평가 '전북 1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성민, 이하 심평원)이 지난 6월 9일에 발표한 '2차 환자경험평가' 결과에서 예수병원(원장 김철승)이 전북지역 1위를 기록해 전북 의료기관 중에서 가장 높은 환자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수병원은 전국 154기관 2만 39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2차 환자경험평가에서 전북 1위, 전국 대상병원 중 11위의 최상위권 평가를 획득했다. 예수병원은 의사, 간호사의 전체적 서비스 평가와 함께 의사서비스 중 환자에 대한 존중, 예의 및 경청과 퇴원 후 관리영역, 환자권리보장 등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김철승 병원장은 "앞으로도 환자와 보호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와 수준 높은 환자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혁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